



盧 대통령 과테말라 도착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과테말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여사가 2일 오전(한국시각) 과테말라 시티 공군기지에 도착, 의정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징역 1년 6월 실형 의미

사적 보복 ‘엄벌’

재력 이용한 조직적 폭행 범치주의 근간 흔들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재벌총수의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사적 보복 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채 검찰과 유·무죄 다툼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양형의 문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종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지 않는 소수전락을 썼다.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김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느냐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 대상이었던 셈이고 실형 여부를 가리는 데에는 이 사건의 속성, 즉 ‘죄질’에 대한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재력을 이용, 조직을 동원한 폭행을 범해 범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고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전혀 사전계획이 없던 우발적 폭행임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택한 것은 ‘재력을 이용한 조직적 사적 폭행’의 심각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김 회장이 직접 흥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등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한 데다 법정에서도 흥기 사용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실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재벌 총수라는 지위에 있는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 똑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대기업 총수의 경우 ‘경제공헌’, ‘거역의 합의금 지급’, ‘부채지 경영 차질’ 등 일반 피고인이 내놓을 수 없는 ‘선처를 구하는’ 감형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감안해준 관행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실형 선고 직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김 회장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얼굴이 일순간 굳었고 변호인단을 향해 못마땅한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다가 대기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박지사의 ‘미래방정식’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남만 따라가면 절대 1등을 할 수 없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발전을 위해선 수십 년 후를 내다 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지

녀야 한다’는 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박지사는 실제로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개발사업)와 F1(포틀러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해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사업이지만,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는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 무려 25조 원을 들여 완도~제주간 80km 길이의 해저터널 개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남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상대로 하는 국제 해양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제주와 전남을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해저터널이 필수적이라는 배경설명도 덧붙였다.

전남의 미래를 계산하는 방정식이 존재한다면 박 지사는 창의성과 참신성에 가중치를 부여한 셈이다.

박 지사의 이 같은 미래 방정식은 그러나 안팎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J프로젝트는 최근 법인이 설립되는 등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 성공을 의심하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역시 일각으로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완도~제주간 해저터널도 현실성보다는 미래의 비전과 참신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의 여건을 감안하면 (각종 시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농림부가 F1경주장 건설에 필요한 ‘간척지 우선사용승락’을 해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문광부가 아직까지 F1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해주지 않는 배경, F1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끝내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선 긴 눈으로 보려는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결정을 하면, 같이 가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패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비전과 창의력’이라는 안경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현실과 타당성’이라는 또 다른 안경이 있어야만 올바른 영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redplane@kwangju.co.kr

공기업 연수·유학 천국... 한해 수백명씩 해외로

역시 ‘神이 내린 직장’

채재비 年 5,000만원 안팎...월급은 그대로

노조가 해외 여행자 선발하는 공기업 많아

공기업들이 해외시찰, 문화탐방 등의 해외단기연수 명목으로 많게는 한 해에 수백 명씩을 해외에 보내고 있다. 해외 여행자 선발에는 노조가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공기업들은 직원 수십 명을 석사 학위 등의 해외 장기 교육과정에 보내고 있다. 공기업들은 학비와 체재비로 한 해에 5천만원 안팎을 제공하고 기본급·상여금 등의 급여는 국내 근무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2일 공기업들에 따르면 국내의 주요 공기업들은 퇴직자, 공로자, 해외경험 없는 직원, 노조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많게는 한 해에 수백 명의 해외단기연수자를 선정, 5~10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다. 공기업들이 지원해주는 1인당 여행경비는 보통 100만~300만원 가량이다.

한국전력은 출장·기술연수 외에 단기 해외연수로 매년 수백 명씩 보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원은 분사 담당부

서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부서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몇 명이 해외단기연수에 참여하는지 파악이 안된다”면서 “그러나 퇴직예정자를 포함해 수백 명이 해외에 다녀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옛 철도공사)은 올해 40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정도의 해외 단기연수를 배낭여행 형태로 실시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원자 가운데 업무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감안해 여행자를 선정한다”면서 “405명의 규모는 전체직원 3만1천480명의 1.28%에 불과한 데다 여행기간은 연월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주택공사는 올해 7박8일의 일정으로 200명을 해외에 보내며 1인당 지원액은 여행코스에 따라 150만~200만원 정도다.

공사 관계자는 “이 단기연수는 노조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면서 “유럽의 경우, 선진 신도시, 대양주는 환경도

시, 동남아는 첨단건축 등이 감정이어서 이런 시설을 둘러보게 되며 여행에는 관광적인 코스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도 한해에 120명씩 국외체류 연수를 보내고 있으며 토지공사도 올해 103명을 대상으로 외국 단기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공기업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 후 의무 근무기간(교육기간의 2~3배)이 있지만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해외 대학의 석사 학위 과정에서 유학중인 사람은 40명 가량이며 해외 대학 석사학위에 들어갈 후보자로 작년에 뽑아놓은 인원은 20명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21명이 해외 석사과정에서 유학중이며 1~2년 후에 해외로 나갈 유학 후보자로 27명을 올해 뽑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학비와 체재비로 연간 6만달러(5천50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산은의 경우 해외 유학·연수자 192명과 50명의 국내연수자, 14명의 국내대학과정 참가자를 더하면 직원 2천470명의 10%인 256명이 국내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합뉴스

통합민주당 당직 놓고 잡음

김낙순의원 사무부총장 사퇴...정책위의장 인사 분열 조짐

지난 1일 이뤄진 통합민주당의 주요 당직 인선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김낙순 의원이 사무부총장직을 사퇴했다. 구 민주당 몫으로 구청장 출신인 고재득 씨가 사무부총장으로 선임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현역의원이 어떻게 전직 구청장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 병 지역구를 두고 맞붙었던 김성수 전 의원과 이근식 의원이 함께 최고위원에 임명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최소한의 고려가 있었다면 한 사람은 최고위원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지역위원장 등 여타 보직을 맡는 것이 정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17대 총선에서 강북 을 선거구에서 최규식 의원과 충돌, 패배했던 김경재 전 의원이 구 민주당 몫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논란거리다.

이와 함께 정책위의장에 유선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 의원이 정책통이라는 평가보다는 박상천 대표와 긴밀한 사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된다면 이번 민주당 몫 주요 당직 인사는 최고위원에 임명된 이낙연 의원만 제외하고 철저하게 박상천 대표 친위그룹이 차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상천 대표가 최고위원 고사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며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대통합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제가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히, 경우에 따라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1위

7월 2일 첫진도 개강

특선요약권 + 단번문제풀이

주택관리사

광주고시학원

문의: 228-8003 (주) 228-8002 (학)

228-8003 (주) 228-8002 (학)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8,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새롭게 단장한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000부터 17,000원부터

0621228-8000

0621228-4711-2